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8008

# 항공

AIR FORCE MONTHLY



KF-16 시험비행조종사  
권희만 중령

1999

4

통권 제250호

공군본부

1999 · 4

## C O N T E N T S

칼럼	동북아 안정의 갈림길	4
공군은 지금		6
생각해 봅시다	임정 수립의 정신을 '제2의 건국 정신' 으로	9
1일 3선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잡자"	10
한문으로 배우는 충효	칠신탄탄(漆身呑炭)	12
캠페인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13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남몰래 펼쳐온 따뜻한 사랑의 손길	14
21세기 공군의 주역들	공사 47기 졸업 및 임관식 수상자들	15
이달에 만난 사람	KF-16 시험 비행 조종사 권희만 중령을 찾아서	16
I Love Air Force	"룩캐프여, 영원하리"	18
	우리 아빠는 자랑스런 공군 정비사	20
	공군 3758부대를 다녀와서	22
<b>항공기 열전</b>	HH-47D(Chinook)	23
<b>기획 특집</b>	한눈으로 보는 세계항공기 발달사	24
<b>마음따라 가는 길</b>	강화(江華) 그곳에 남은 역사의 향기	28
<b>취미의 세계</b>	컴퓨터로 즐기는 전투 비행의 세계	32
<b>기상 전망대</b>	4월은 잔인한 달인가?	35
<b>문화 마당</b>	영화 <쉬리>를 보고	36
<b>공군을 본다</b>	'사이버 공군대학' 으로 오세요	38
<b>Green Air Force</b>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우리 가족처럼	41
<b>경제를 살리는 지혜</b>	경제난 극복 우수 부대 '공군 5672부대'	42
<b>Air Power</b>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44
<b>마음으로 읽는 글</b>	공원의 사진사	46
<b>나의 생각 나의 느낌</b>	일생에서 가장 정열적이었던 시간들	48
<b>알고 싶어요</b>	하사관 후보생, 어떡해야 하나요?	50
<b>기지소식지 No. 1</b>	노란 견장에게	51
<b>이달의 공군 역사</b>	4월의 공군 역사	52
<b>신간 안내</b>	국내 실무 연수 外 1권	53
<b>알립니다</b>		54
<b>포토 에세이</b>	만약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55

### 참모총장 지휘방침

- 완벽한 전비태세
- 실전적 교육훈련
- 효율적 자원관리
- 참신한 공군문화

발행일자/1999년 3월 25일(통권 제250호), 발행인/공군참모총장, 발행처/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233, 042-552-6233, 편집·디자인/다름기획 02-325-6260, 표지사진/권혁재, 인쇄/공군교재창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표지 인물 : 권희만 중령

올해로 만 4년째 KF-16 C/D의 시험비행을 하고 있는 권희만(權熙晩, 42세, 공사 29기) 중령은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완벽한 비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박준택

공사 4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초기 대응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미래 전쟁에 있어서는 공군에 의한 제공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첨단화된 과학 기술군의 핵심 전력으로서 과학전·전자전·정보전이 될 미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완벽한 대비 태세 유지와 강한 공군력 건설에 가일층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3월중 참모회의 훈시」 중에서

# 동북아 안정의

## 갈림길

세종연구소 박사 이대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보 태세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 '페리 보고서'에 나타난 대북 정책

한반도를 중심으로 향후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된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이른바 '페리 보고서'의 내용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 자원의 고갈로 체제 붕괴 위협까지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 카드와 미사일 카드를 가지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협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작년년부터 페리(William Perry)를 대북 정책 조정관에 임명하여 전반적인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곧 발표될 페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북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지만, 북한이 포용 정책을 거부할 경우의 상황에 대한 언급, 즉 북한 행동에 대한 미국 인내심의 한계 설정도 수록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대북 강경책으로 선화한다면 북·미 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남북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식량을 구하러 가기 위해 열차를 기다리는 북한 소년들

### 북방 3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둘째, 북방 3국 즉,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과거 냉전 시대에서도 찾기 힘든 3국 협력 체제의 등장이 우려되고 있다. 1997년 11월 열친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한·러 간의 외교 갈등 이후 북·러 관계가 복원되고 있으며, '조·러 신우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더욱 긴밀한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대북한 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의 체제 동요를 막기 위한 최저량의 식량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현재 북한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식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이러한 제안은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물론 나아가 미국의 대북한 식량 카드를 약화시키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TMD)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명분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이나 실질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체제에 한국의 참여를 중용하고, 대만도 참여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비록 한국은 TMD 체제 불참을 선언하였으나, 대만 참여 문제로 중국이

크게 반발하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동북아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철저한 안보 태세, 동북아 안정의 길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의 안정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한미간의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페리 보고서에 북한을 극히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북방 3국 협력 체제와 TMD 체제 구축이라는 신봉쇄 정책간의 대결 구도 속으로 말려들어서는 안되고, 대결 구도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TMD 체제 불참을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끝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 3원칙에도 명시되었듯이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은 전쟁 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를 전제한다. 즉,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 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안보 태세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확고한 안보 태세 유지는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



대한민국 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 R.O.K.A



김대중 대통령 공군사관학교 47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3. 10)

## '99 空軍 政策 諮問委員會 開催



공군본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3. 15)



공군본부 제2의 건국 운동 한마음 다집대회 실시 (3. 11)



# air Force



공군본부 유종근 전복지사 초청  
경제강연회 실시 (3. 5)



3758부대 강원 원산 초등학교 초청 부대 견학 (3. 3)



5315부대 정신교육 시범운영  
실시 (3. 6)



공군본부 육·공군 협력증진행사 실시 (3. 17)

# R.O.K Air Force



3579부대 전투력  
복원훈련 실시 (3. 16~17)



공군본부 한상진  
정신문화연구원장 초청  
특별강연회 실시 (3. 16)



공군 사관후보 장교회  
창립총회 개최 (3. 20)

방공포병 사령부 지휘관  
전투장비 및 관리체계  
시험개최 (3. 4)





1919년의 '3·1 독립 만세 운동' 무렵 독립 지사들은 국내외에 흩어졌던 각 임시 정부를 통합하고, 1919년 4월 11일 상하이(上海)에서 '민주 공화제'를 바탕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한마음으로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 선포한 점이다. '대한'이라 하여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민국'이라 하여 주권이 백성에게 있고, 남녀·귀천·빈부의 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을 임시 헌법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만이 정통성을 지닌다는 '국민의 정부'를 내세우는 것도 바로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3·1 독립 정신의 의지를 결집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계주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제2의 건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권 상실의 암흑 속에서 불굴의 독립 정신을 지녔던 선조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경제 주권 상실의 위기 앞에서 '금 모으기 운동'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3·1 독립 정신의 의지를 결집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계주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병행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새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제2의 건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는' 제2의 건국 운동으로 되살리려는 것이다. 또한, 임시정부가 연통제(聯通制)를 실시하여 모든 국민을 임시정부와 연결(예 : 독립 운동 자금 모금)하여 국민이 독립 운동에 가담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해야만 나라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제2의 건국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 제2의 건국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국권 상실이나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가 필요했고, 우리가 굳이 제2의 건국 운동을 전개하겠는가? 우리가 임시정부의 정신과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은 나라의 기본을 건전하게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새 천년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공군에서는 병영의 국민 정신 교육 도장화를 통해 전 장병들에게 민주 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21세기 항공 우주 시대의 주역인 신지식인으로서 국가 안보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영광된 미래를 보장하는 굳건한 안보의 버팀목이 될 것을 우리 모두 굳게 다짐하자. (☘)

공군본부 중위 신 동 현

#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로잡자”

하루하루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가짐, 또 부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갈  
 때 우리는 군인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우리 부대와  
 공군이 많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존경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조그마한 잘못도 없이 살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 인생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훌륭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개선하고 바람직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신, 즉 '바로잡기'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활발한 사회일수록 선진화된 민주 사회이고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습관일수록 바로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늘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잘못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이를 바로잡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자신이 지금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경우 사소한 잘못은 때로 큰 잘못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작은 보안 규정을 위반하는 마음 자세가 후에 중요한 기밀을 유출시킬 수도 있고, 흐트러진 군 기강과 훈련시 대충대충 하는 습관은 실제 상황에서 중대한 실수를 낳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진정한 군인의 정신과 모습은 점차 잊혀지게 되고 변화와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참군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

군인으로서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모습을 살펴봅시다. 작게는 복장 문제에서부터 기본 질서 의식의 결여, 절제되지 않은 언행, 근무 시간에 개인 용무 보기 등 고쳐야 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열거하면서 예전처럼 변명을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핑계삼지 말고, 자신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내

세우지 맙시다.

우리는 군인이고, 군인으로서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단지 손해보는 길이거나 고통의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군인으로서의 멋과 분명한 사명감이 있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군인의 참모습을 되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마음가짐, 또 부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갈 때 우리는 군인의 참모습을 회복하고 우리 부대와 공군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일 3선 운동으로 '국민의 공군' 실현

'1일 3선 운동'은 개개인의 성숙된 삶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군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크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자신과 공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 속에 작은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개개인은 물론 공군 전체적으로는 분명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돕고 양보하는 데서 시작하여 친절함을 통해 바로잡기로 귀결되는 '1일 3선 운동'을 지속적이고 생활화된 습관으로 발전시켜 공군의 임무 완수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공군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8전비 소위 김도형

# 칠신탄탄 (漆身呑炭)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 담 구

漆

옷 칠

(총14획 · 水부수)

身

몸 신

(총7획 · 身부수)

呑

삼킬 탄

(총7획 · 口부수)

炭

숯 탄

(총9획 · 火부수)

몸에 옷칠을 하고 숯을 삼킨다는 뜻이지만 이 말 속에는 처절한 사연이 깃들여 있다. 중국 춘추 시대 말기, 막강했던 진(晉)나라도 사분 오염되어 지백(知伯)·조(趙)·한(韓)·위(魏) 등 공경(公卿)들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지백은 한·위와 더불어 조가(趙家)를 공격했다. 지백은 조가의 진양성을 곤경에 빠뜨렸으나, 함락 직전 한·위 양가가 반기를 들었으므로 지백은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 지백의 신하 중에 예양(豫讓)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주군의 복수를 맹세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번은 조가의 주군 양자(襄子)의 궁전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기회를 노리던 중 그만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양자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한 이유를 묻자 예양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백은 나를 국사(國士)로 대해주셨다. 그러니 나도 국사로서 보답하려는 것이다.”

양자는 그를 대단한 충신이라면서 풀어주었다. 그러나 예양은 그 뒤에도 복수를 다짐하며 계속 양자를 노렸다. 그는 자신의 ‘몸에 옷칠을 해서[漆身] 문둥이처럼 보이게 하고 ‘숯을 삼켜[呑炭] 병어리가 되게 하여 걸식하면서 양자의 동정을 살폈다. 예양의 변장이 하도 감쪽같아서 그의 아내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 다만 그의 친구 한 사람이 알아 보고는 복수를 한다 해도 달리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고 타일렀지만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예양은 다리 밑에 숨어서 그곳을 지나게 될 양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다리 앞까지 이른 양자의 말이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양자가 다리 밑을 살피게 해서 숨어 있던 예양을 찾아냈다. 양자는 끌려온 예양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대는 이미 옛 주군에게 할 일을 다했고, 나도 그대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나의 목숨을 계속 노리니 어쩔 수 없다.”

양자가 그를 죽이라고 명하자 예양은 마지막 소원이니 양자가 입고 있는 옷을 빌려달라고 했다. 옷을 벗어주니 예양은 비수를 꺼내 옷을 세 번 찌르고는 “지백이시여, 이제 원수를 갚았나이다.” 하더니 다음엔 제 몸을 찢러 죽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있는 이야기다.Ⓢ

## 내가 먼저 인사합시다

공군에서는 활기차고 명량한 병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 먼저 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계급(서열) 확인이 가능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인사를 하고 상급자가 답례를 받는데, 이때는 "필승!"이라는 구호와 함께 거수 경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급자는 인식 못하고 상급자가 먼저 인식할 경우는 상급자가 먼저 인사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고한다." 또는 "좋은 아침" 하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계급(서열)간이나 또는 상호 계급 식별이 곤란할 때에는 상호간에 거수 경례 또는 구두로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례는 수례자가 경례자를 명료히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하는 것이며, 경례를 행할 때는 서로에게 주목하여야 하고, 정지중의 개인 경례는 수례자를 향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운동에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흡연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후 진분을 반드시 끄고, 궂초는 준비된 휴지통에 버리는 등 뒷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과 회의장에는 재떨이를 비치하지 맙시다.

담배에는 일산화탄소, 카드뮴, 청산가리 등 무려 40여 가지의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흡연시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암 발생 원인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암 사망자의 경우 90~95%가 흡연자(간접 흡연자를 포함)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비흡연 여성이 흡연 남성과 결혼 생활을 할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은 2배 증가하게 되며, 흡연자의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의 22배입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개당 5분 30초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은 금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금연 지역에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흡연시 뒷처리 철저와 공공 질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기 바랍니다. ⊕



## 73기상전대 반기성 중령 남몰래 펼쳐온 따뜻한 사랑의 손길

군 유일의 기상 전문 부대인 공군 73기상전대에서 기상 연구부장으로 근무하는 반기성(潘基成·사관후보생 73기·45세) 중령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의지할 곳 없이 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음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그의 숨은 선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공군 참모총장이 불우 노인을 위문하기 위해 성애경로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경로원 원장이 남몰래 몇 년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 중령이 있음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비로소 그의 선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반중령은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통해 경로원을 방문, 봉사 활동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예배를 보고, 아픈 상처를 위로하며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또한 연중 명절과 연말 등 연 4회 정도는 목도리·내의·양말·건강 식품 등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선물을 준비해 찾아가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했고, 또한 틈틈이 경로원 노인들을

단체로 밖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는 등 친자식 이상으로 노인들을 모셨다.

반중령은 경로원 한 군데에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익명으로 사회 봉사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소년·소녀가장들을 소개받아 도움을 주고 있다. 한 번은 소년 가정의 보청기 지원을 요청받고 즉시 60여만원을 보태어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여름에 비가 오거나 한겨울 낭만

적인 눈이 내려도 오히려 노인들의 건강 걱정부터 앞선다는 반중령. 그는 자신의 선행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데 대하여 "세상에는 의외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부끄럽다."고 겸손해 하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고 여력이 있는 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

공군본부 대위 박 승 만

성애 경로원을 방문한 반기성 중령



# 21세기 공군을 이끌 주역들

공군사관학교 제47기 졸업 및 임관식 수상자들



## 1. 대통령상 수상자 : 문병교 (文炳敎) 소위

- 출신고 : 서울 대신고 ■ 전공 : 항공공학 ■ 특기 : 조종
- 생활신조 :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
- 수상소감 : 매년 졸업식 때마다 1등으로 졸업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선배들을 보며, 그저 상상으로나마 잠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내가 이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다니 정말로 기쁘다.



## 2. 국무총리상 수상자 : 장병욱 (張炳旭) 소위

- 출신고 : 경남 밀양고 ■ 전공 : 항공공학 ■ 특기 : 조종
- 생활신조 : 항상 노력하며 겸손하자.
- 수상소감 : 이 상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더 계발하여 세계 속에서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예 공군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 3.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 신범수 (申凡秀) 소위

- 출신고 : 충남 홍성고 ■ 전공 : 기계공학 ■ 특기 : 조종
- 생활신조 : 후회없는 인생을 살자.
- 수상소감 : 인간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 누구나 똑같은 개수의 벽돌을 가지고 있다. 벽돌로 벤치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채의 집을 만들 수도 있다. 내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한 학기 특박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4. 합동참모의장상 수상자 : 김종택 (金鍾澤) 소위

- 출신고 : 강원 강릉고 ■ 전공 : 무기기초과학 ■ 특기 : 조종
- 생활신조 : 깨끗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
- 수상소감 : 최선을 다하고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멋진 군인이고 싶다. 나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 5. 참모총장상 수상자 : 최진 (崔眞) 소위

- 출신고 : 부산 사대부고 ■ 전공 : 항공공학 ■ 특기 : 정보
- 생활신조 :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면 때는 온다.
- 수상소감 : 부모님의 사랑으로, 선배의 애정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신 중대장님, 훈육관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에서야 늘 우리의 주위에서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신 그분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 KF-16 시험 비행 조종사 **권희만** 중령을 찾아서

“그동안 저의  
경험을 살려  
후진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2002년부터  
양산될 국산 항공기인  
KTX-2를  
직접 시험  
비행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170cm의 적당한 키에 당당한 체구를 갖춘 전형적인 공군 조종사의 인상을 풍기는 권희만(權熙晩·공군본부 항공사업단·42세·공사 29기) 중령은 만 4년째 해오고 있는 KF-16 C/D 항공기의 시험 비행을 위해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도 시험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상기된 모습에서 우리 공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기자 : 지금 하고 계시는 시험 비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권중령 : 이곳에서 행하는 시험 비행은 미국 록히드 항공회사에서 KF-16C/D Block 50/52 항공기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 시험 비행 절차서를 토대로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도록 변형된 절차서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지난 95년 4월, 역사적인 KF-16C/D 국내 최초 조립 생산 후 첫 시험 비행부터 지금까지 만 4년여에 걸쳐 완벽하고도 안전하게 시험 비행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과 삼성항공 및 협력 회사들의 기술 수준도 4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 매년 시험 비행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서 비행에 임하는지요?

권중령 : 최근에는 항공기 생산 기술이 많이 향상되어 특별히 큰 결함이 없이 시험 비행을 수행하고 있지만, 시험 비행 항공기는 언제 어떻게 어떤 부품이 결함을 나타내어 사고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뢰감이 많이 생겼으나, 한편으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늘 긴장된 마음으로 완벽한 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 Test Pilot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중령 : 저는 원래 F-4E 조종사였는데, 미국에서 항공공학 석사 공부를 하고 돌아온 후 시험



평가 분야에서 업무를 하다가 KF-16 시험 비행 조종사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후에는 F-16으로 기종 전환 훈련을 받았으며, 또다시 미공군 시험비행학교에 가서 시험 비행 조종사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귀국 후에 다시 F-16 비행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곳에 와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 앞으로의 포부가 있으시다면요?

권중령 : 제가 교육을 받았던 미공군 시험비행학교는 '94년 7월에 50주년 기념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1990년이 되어서야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시험 비행 조종사 및 기술사들이 배출되어 필요한 분야에서 시험 비행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에도 항공 산업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항공기 시험 비행 평가 능력을 구비하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갖춘 시험 비행 조종사들을 양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경험을 살려 후진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2002년부터 양산될 국산 항공기인 KTX-2를 직접 시험 비행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기자 : 권중령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담/정리 3훈비 소위 김진형

# “록캐프여, 영원하리”

YTN 국제부 기자(사후 84기) 안 병 역

나는 공군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종종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한다.

비록 예비군 훈련이 끝났으나 이제 1년에 한두 번 동기생 모임이 있기 때문에

공군에 대한 인연과 애착은 이어지고 있다.

“맥주가 음료수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송탄에 있는 미7공군 본부. 88년 8월 임관해 작전사령부에 배치받았다.

이듬해 5월로 기억된다.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포커스 렌즈에 참가하느라 7공군 병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 공군의 전투력 현황을 맡고 있던 나는 상대방인 미7공군의 여군 소위와 말다툼을 했다.

## 미 여군 소위와의 말다툼

로라 윈(Laura Warn)이라는 여군 소위는 훈련 전에 업무상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어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다. 당시 미공군은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 훈련에서도 첨단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은 전산화 초기 단계이어서 훈련에서 수작업을 하는 부분이 많았다. 윈 소위는 나와 같은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미 공군의 전투력 현황을 비교하다가 왜 자신이 기록한 현황과 다르냐고 다소 신경질적으로 물어왔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시간 차이가 다소 있다는 내 대답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러한 대화 중에 결국 ‘맥주가 음료수인지 술인지’에 대한 설전까지 오가게 되었고,

나는 “맥주는 음료수이며, 술 마시고 타인에게 폐를 안 끼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냐?”고 응수했다.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한미 공군 장병에게 “맥주가 음료수냐 아니면 술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공교롭게도 사무실에는 동수의 한미 공군 장병이 있어 결말이 안 났으나 의장격이던 내가 캐스팅 보트를 던져 맥주는 음료수라는 결론을 냈다. 윈 소위는 수긍할 수 없으며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건너갔다. 군대 생활을 회고할 때면 맨 먼저 떠오르는 한 토막의 에피소드이다.

## 시원섭섭한 ‘마지막 예비군 훈련’

91년 전역 후 4·5년차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서였다. 특기 교육을 받는데 당시의 전산화 관련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고, 관심이 있었던 나는 이에 관해 질문을 던졌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 전산화가 많이 진척되었고 당시 내가 맡고 있던 업무도 이제는 첨단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 여군 소위와 말다툼했던 일이 뇌리에 스쳐가듯 지나갔다.

지난해 11월, 제법 쌀쌀한 날씨에 2박 3일간의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교육사령부에서 받았다. 훈련이 강화되어 현역 못지않은 군사 훈련을 받았다. 다소 힘이 들었으나 대전 교육사령

부에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을 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니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어쨌든 예비군 훈련은 끝났다. 직장에 있으면서 동원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면 휴가라는 기분도 다소 들어 어떤 때는 훈련이 기다려지기도 했으며 귀찮다는 생각도 다소 있었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훈련이라 생각하니 시원섭섭했다.

### 사뭇 그리워지는 '그때 그 시절'

91년 전역 후 특기나 각 구대별로 소규모 모임은 있었으나 84기 동기 전체 모임은 논의되지만 했을 뿐 한 번도 없었다.

임관 10년이 되니 몇몇 뜻있는 동기생들이 모여 10주년 기념 모임을 준비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전체 동기생 모임이 지난해 11월말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있었다. 100명 정도가 모였으며 임관 후 서로 다른 곳에서 근무해 10년 만에 처음 다시 보는 동기생도 있었다. 어려웠던 사관 후보생 훈련과 군대 생활, 현재 직장 생활 등을 이야기하며 모처럼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젊은 시절 많은 생각과 고뇌를 공유하며 군 생활을 가졌던 그때가 사뭇 그리워졌다. 그리고 자주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자며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 잊지 못할 공군에 대한 사랑과 추억

올해는 우리 공군이 창설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걸프전이나 지난해 12월 미·영 주도의 이라크 공습에서 보듯이 현대전에서 공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글머리에 적었던 미 여군 소위와의 말다툼, 그리고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 우리 공군의 발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공군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종종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한다.

비록 예비군 훈련이 끝났으나 이제 1년에 한두 번 동기생 모임이 있기 때문에 공군에 대한 인연과 애착은 이어지고 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공군에 대한 내 사랑을 담아 이렇게 말하고 싶다.

“록케프(ROKAF)여, 영원하리.” 🇦🇷

# 우리 아빠는 자랑스런 공군 정비사

부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김희정 (5군비 부대정비대대 김적수 원사의 차녀)

우리 아빠가 우리 나라의 하늘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싸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하시고 땀흘리며 비행기도 정비하신다고 생각하니

맘속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느껴졌다.

햇살 눈부신 봄날 하늘은 유난히 푸르다.  
저 멀리 푸른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가 눈에 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엔 아빠가 떠오른다.  
하늘... 비행기... 그리고 아빠!  
우리 아빠는 공군이다. 그래서 난 어릴 적 친구들과 놀다가도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발

견하면 언제나 "아빠!" 하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그때마다 나를 향한 친구들의 부러운 눈총에 나는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다.

##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빠의 모습

하지만 아빠가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라는 사실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어릴 때 난 아빠에게 별도 많이 받고 야단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우리 아빠만 지나치게 무섭고 엄하신 것 같았다. 나는 아빠가 무서운 이유가 군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빠가 군인이라는 사실이 불만인 적도 많았다.

아침 해가 뜨기 전 우리 아빠는 부대로 출근하신다. 아빠는 부대에서 비행기 정비도 하시고 비행기를 직접 타기도 하신다. 지난번에 아빠를



김희정



따라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조종실에서 아빠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의 비행이라 멀미도 나고 잠도 왔는데 아빠는 계속 비행을 하셨다.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나라의 하늘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싸우면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하시고 땀흘리며 비행기도 정비하신다고 생각하니 맘속에 무언가 뭉클한 것이 느껴졌다.

### 아빠는 든든한 앵두나무, 나는 열매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별빛이 찬란한 늦은 시간에 돌아오신 아빠께서는 힘든 근무에도 내색하지 않고 우리들 공부도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휴식을 취하신다. 열심히 일하고 오신 피곤한 몸에도 아빠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나의 교육에 힘써 주셨다. 그러한 아빠의 관심으로 나는 이렇듯 고등학생이 된 것이다. 어릴 적 자꾸만 아빠가 공부시키는 게 괴로웠지만 이젠 고맙게 느껴진다. 그런 아빠가 있었기에 이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3년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무섭고 엄한 호랑이 아빠지만 아빠는 우리와도 잘 놀아 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신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놀아도 아빤 우리 또래처럼 우리들의 기분을 맞

추시려 애를 쓰신다. 나는 그런 우리 아빠가 친구같이 편하게 느껴진다.

가끔 술을 드시고 담배도 피우시지만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기둥인 아빠가 언젠가 나와 함께 집 앞에 심어놓았던 앵두나무처럼 튼튼하셨으면 한다. 아빠가 튼튼하셔야 나도 우리집 앵두나무의 새빨강고 맛있는 앵두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니 가슴속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우리 나라 하늘을 지키시는 용감하고 성실한 군인!! 앞으로도 한 여성의 가정적인 남편이자 두 아이의 훌륭한 아버지로 남아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아빠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

# 공군 3758부대를 다녀와서

강릉 왕산초등학교 4학년 임성훈



항공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임성훈군

나는 어려서부터 비행체에 대해, 특히 UFO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아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기지를 건설해서 미사일도 제작하고 온갖 잡동사니를 가지고 우리 집 옥상에다 과학 기지를 만들면서 진짜 전투기를 타보고 싶었다. 책에서만 보고 상상만 했었는데 오늘 난 굉장한 경험을 했다.

전투 조종사들만이 입을 수 있는 전투복을 입고 산소 헬멧을 쓰고 비행단 단장님께서 직접 매주신 빨간 마후라를 착용하고 전투기 F-5EF에 올라탔다. 내가 비행기의 조종석에 타 보니 수많은 조종 기구가 있었다.

단장님께서 조종법을 가르쳐 주시고 김호식 중령님께서 전투법을 알려주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이게 제일 쉬운 기종이라고 하시니 다른 것도 타보고 싶고 공부할 것도 많다고 생각했다. 특히 조

종복은 아주 가볍고 불에 타도 눌러붙지 않는 특수천으로 제작되었다. 전쟁기념관에 가서 옛날 전투기와 장비 모습을 보니 아주 구식이라 조종사들이 답답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한번

설계해 봐야겠다. 그 다음 브리핑실에서 김호식 박사님과 내가 그린 구조선에 대하여 토론하였는데, 양력 방향타는 우주에서 사용 못한다 등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다.

제일 인상 깊었던 일은 나와 함께 부모님, 교장 선생님, 친구들 모두 초청해 주시고 우리의 견학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공군 아저씨들께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이다. 감동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우주선 설계사가 되어 내 꿈을 실현시키고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뜻일 거라고 생각했다.

생전 처음 진짜 공군처럼 조종복을 입고 전투기도 타보고 또 TV 인터뷰도 해보고...

1999년 3월 3일 수요일. 꿈 같은 오늘은 나의 뇌 속에 영원히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

\* 위의 소감문은 지난 3(3)수에 공군 3758부대를 다녀온 왕산초등학교 4학년 임성훈(林星勳) 학생의 글이다.

#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만능 엔터테이너 *HH-47D(Chinook)*

Chinook기는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스페인, 태국 등 18개국에서 총 1,134대가 운용되고 있다.

## 다양한 전천후 임무 수행 위해 개발

1950년대 중반 미육군은 다양한 전장 임무를 전천후로 수행하기 위하여 40명의 완전 무장 병력 수송, 부상병 후송 능력과 115마일의 작전 행동 반경을 가지며 후부 도어가 장착된 중량 40,000파운드급의 새로운 중형 수송헬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956년부터 시작된 개발 계획을 보잉사에서 담당하여 1959년 CH-46모델을 기초로 개발된 YHC-1B(:YCH-47A)가 선정되었으며 1962년부터 CH-47A로 개칭 후 미육군에 인도되었다.



Chinook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후방 로터 계통(Tandem Rotor Sys')으로 전방-반시계, 후방-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Cabin 도어는 비행중 개방 가능한 우측 및 후방 램프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수상 착수 가능토록 칸막이(Water Dam)가 제작되어 있으며, 착륙 장치는 임무 수행에 용이한 4개의 Non-retractable형으로 되어 있다.

## 대량 공수 능력 보유한 다목적 헬기

또한 엔진을 보강하고 야간 비행 능력 및 3군데의 HOOK를 확보한 CH-47D를 1980년에 생산하였고 4개의 로터 Blade와 제빙 장치(De-icing System)를 보강한 CH-47E를 1990년에 생산하여 운용중에 있다.

Chinook기는 지난 1971년 월남전에 실전 투입되어 병력·물자·장비 공수 임무 수행과 영국 공군에서 전후 포클랜드에 투입하여 각종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틸트로터기(V-22)의 작전 운용과 실전 투입 완료 전까지는 대량 수송 목적의 주력 공수헬기로 지속 운용될 전망이다.📍

전투발진단 무기체계실

## 주요 성능 및 제원

최대속도 : 170kts(313km/h), 최대 항속거리 : 520마일(957km), 체공시간 : 4시간,

최대 이륙중량 : 54,000파운드(24,494kg), 엔진추력 : 3,750마력(SHP)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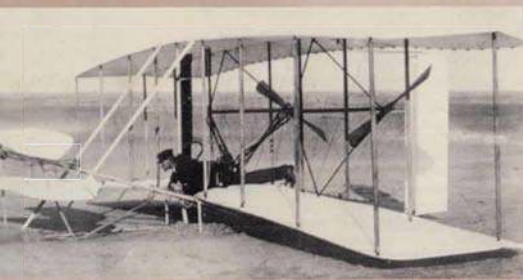
탑승인원 : 완전무장/구조인원 33명, 들것환자 24명, 무장 : 7.62mm × 3



# 한눈으로 보는 세계항공기 발달사

정찰 비행중 적기와의 조우가 잦아지자 조종사들은 권총을 휴대하고 공중에 올라가 서로 권총으로 대결하는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곧이어 기관총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본격적인 공중전을 벌이게 되었다.

## Wright Flyer I,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



1903년 12월 17일 10시 25분경 키티 호크(Kitty Hawk)에서 라이트(Wright) 형제는 플라이어 1(Flyer 1)으로 시험 비행을 하였다. 당일 4회에 걸쳐 동력에 의한 인류 최초의 비행을 하였는데, 4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59초 동안 260m를 비행하였다. Flyer 1의 날개 길이는 12.29m, 길이는 6.43m, 기체 무게는 340kg, 속도는 48km/h이며 12마력의 엔진이 1개 장착되어 있었다.

## 제1차 세계 대전의 항공기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에 비행기는 하나의 스릴 있는 진기한 스포츠 용구로 생각되고 있었으며, 무기로서의 사용 가치가 충분히 검토되기 전인 1914년에 제1차 대전이 발발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항공기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급격한 성능 향상을 보이게 되었다.

전쟁 초기에 항공기는 주로 정찰 임무를 담당하여 적의 위치를 탐색하는 데만 이용되었으며 무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찰 비행중 적기와의 조우가 잦아지자 조종사들은 권총을 휴대하고 공중에 올라가 서로 권총으로 대결하는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곧이어 기관총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본격적인 공중전을 벌이게 되었다.





SPAD VII

## 1. Fokker Eindecker

포커 아인데커, 독일



포커 E-I은 최고 속도 145km/h 이하, 상승 한도 3050m였다. 이것은 우수한 기동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탑재된 1기의 기총은 거의 정품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기총은 대단히 위력적이었으며 기총을 전방으로 발사토록 하는 인터럽트 기어에 적합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롤랑 가로(R. Garros)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포커(Fokker)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사이를 지나서 발사되도록 동기화된 실제적인 기총을 장착했다. 그후 E-II가 E-I에 장착되었던 80마력 7기통 오버우어젤(Oberursel) UO 로터리 엔진 대신에 더욱 강력한 100마력의 비 엔진을 장착하여 총 23대가 제작되

었으며, E-III는 260대 정도의 다양한 모델로 실험되었고, E-IV는 14기통의 160마력 오버우어젤 V-III 엔진을 장착하고 2기의 기총을 장비하려 했으나 잦은 엔진 고장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 2. SPAD VII

스패드 VII, 프랑스

SPAD사에서 제작된 전투기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그 어느 기종보다 훌륭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전쟁 전에 모노코크 구조로 된 비행기

를 설계하여 204km/h의 비행 속도 신기록을 세운 베셰로(Bechereau)에 의해 설계된 SPAD-VII은 1916년 4월에 첫선을 보였다. 이 기종은 나오자마자 그 능력을 인정받아 프랑스 공군에서 사용되었고, 기네메르(Guynemer, 54대 격추), 뽕끄(Fonck, 75대 격추)와 같은 프랑스 공군 에이스의 탑재기로 이름을 날렸다.



연합군 최고의 Ace, 르네 뽕끄



S. E. 5a



### 3. Sopwith F1 Camel

소피드 F1 카멜, 영국

카멜은 2기의 전방 발사 0.303인치 기총을 조종석 전방에 장착하여 최초로 동기화된 쌍기총 체계를 도입한 비행기로 Royal Flying Corps에서 제작했던 단좌 전투기 중 최고의 격추 기록(총 2900대)을 갖고 있다.

엔진 토크 때문에 초보자들이 조종하기는 어려웠으나 기동성과 조종성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노련한 조종사에게는 최상의 선택이었다.

합계기인 340대의 2F-1 Camel을 포함하여 총 5490대가 생산되었다.

### 4. Royal Aircraft Factory S. E. 5a

로열 에어크래프트 팩토리 S. E. 5a, 영국

S. E. 5a는 속도, 기동성, 무장에서 독일 전투기보다 우수한 단좌 항공기를 제작해 달리는 영국 공군 지휘부의 요구에 의해 Royal Aircraft Factory사에서 제작되었

다. 이 전투기는 기총을 날개 위쪽에 장착하고 바람막이를 제거하였으며, 8인치까지 좌석을 낮춤으로써 속도 증가를 꾀하였다.

이 기종의 최대 장점은 그 당시 영국 조종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빠르고 높은 상승 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최고 2시간 30분의 높은 항속 시간을 가능케 하는 연료 탑재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 5. Morane-Saulnier A1

모랑-솔니에르 A1, 프랑스

기수에 기총을 단 프랑스 최초의 전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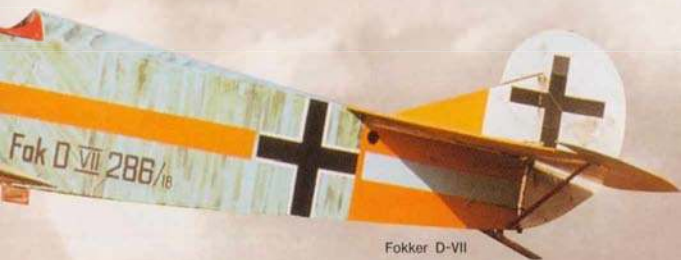
## 6. Fokker Dr.1 Dreidecker

포커 Dr.1 드라이데커, 독일



날개를 석 장으로 만들어 날개폭을 줄였기 때문에 기동성이 매우 뛰어났다.

1차 세계 대전 최고의 에이스였던 독일의 '붉은 남



Fokker D-VII

작' 만프레드 폰 리히토펜(Manfred von Richthofen)의 붉은 색 기체가 유명하다.

## 7. Fokker D-VII

포커 D-VII, 독일

D-VII은 1918년 1월 베를린 근교 아들러스호프(Adlershof) 기지에서 30대의 다양한 설계 제작기들 중 시험 비행을 통해서 선정되었으며, 초기에 400대를 주문받아 생산을 시작했다.

1918년 8월에는 설계 변경된 D-VII F가 최초로 생산되어 일선 배치되었으며, 이 기종에는 BMW-IIIa 엔진이 장착되었다. 이 엔진은 20마력의 잉어 동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어 200km/h의 성능과 상승률 및 상승 한도를 개선했는데, 이로 인하여 5000m의 고도를 상승하는 데 이전에 38분 걸리던 것이 14분으로 단축되었다.

1차 세계 대전 말기까지 총 800대의 D-VII가 작전에 참가했으나 그 평판에 비교해 본다면 그 수량은 적은 편이었다. 전후에 D-VII는 네덜란드와 동인도에 대량 수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포커 항공사는 유럽에서 제일 가는 항공 사업체가 되었다.(다음 호에 계속) ☺

공군박물관장 김 영 주

### 제1차 세계 대전의 인물

## 오스발트 빌케(Oswald Boelcke, 1891~1916)



오스발트 빌케는 1차 세계 대전 당시 40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이자 공중전의 개념을 확립시킨 전술가였으며, 전설적인 격추왕 '붉은 남작' 만프레드 리히토펜의 스승이었고, 무엇보다도 교전국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격을 지닌 신사였다. 한 번은 물에 빠진 프랑스 소년을 보고 웃 입은 채로 뛰어들어 구해준 일로 인하여 적국인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인명 구조 훈장'을 받기도 했다. 빌케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식은 온 독일 국민의 애도 속에 황태자와 동등한 격식에 맞춰 치러졌으며, 적국인 영국에서도 비행기를 보내어 비문을 쓴 화환을 캄브리아 상공에서 투하했고 독일 공군도 이를 막지 않

았다. 영국군이 보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감하고 관대한 적수였던 빌케 대위를 기리며 -영국왕립항공대로부터."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 그 이상의 존재였다.

# 강화(江華)

그곳에 남은 역사의 향기

강화는 고려 때부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제2의 서울로서의 임무가 주어졌으며,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조정에서는 강화로 천도함으로써 실지 회복을 꾀하였고, 국가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초지진과 소나무

마니산 참성단의 성화 채화



강화(江華)는 우리 나라에서 다섯 번째 큰 섬으로 남북 27km, 동서 16km의 장방형이다. 낮은 상륙함을 이용하여 강화로 가던 길도 1970년 694m의 강화대교가 가설되고 나서부터는 서울 인근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 경주, 부여에 뒤지지 않는 역사의 고도

강화도는 우리 나라 개국의 역사를 간직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서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연 요새로 몽고의 난을 피하기 위한 고려의 임시 수도, 그리고 개화기에는 수차례의 양요를 겪게 되는 바로 그 고난의 역사의 현장이다.

강화도에는 약 2만년 전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쌍날짜개'와 청동기 시대 족장들의 무덤이었던 '선돌[支石墓]'이 거대한 모습으로 남아 있고, 단군 신화의 유적인 마니산의 참성단(斬成壇) 등 고대 유적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임시 수도로서 적잖은 유적이 남아 있어 신라의 고도 경주나 백제의 옛 도읍지인 부여와 비교하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역사의 고도(古都)라 할 수 있다.

### 강화, 위기 때마다 나라의 마지막 보루

강화의 옛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라 하여 고구려 시대부터 군제(郡制)를 두고 관리를 해온 것으로 <강화사(江華史)>에는 기록되고 있다. 또한 통일 신라 시대에는 태수(太守)를 두어 이 지방을 다스리게 한 것을 보아 옛날부터 강화를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화는 고려 때부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제2의 서울로서의 임무가 주어졌으며,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조정에서는 강화로 천도함으로써 실지 회복을 피하였고, 국가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몽고의 침입을 받아 이곳으로 서울을 옮긴 고려 왕조는 근 40년간을 이곳을 수도로 삼았으며, 그후에도 몇 차례의 천도를 행함으로써 고려의 서울인 송도를 버리고 이곳을 서울로 삼으며 궁궐로서 필요한 건물을 짓기에 이르게 되었다.

참으로 묘한 것은 몽고군의 침입으로 고려 태자가 불모로 잡혀가게 된 것이 강화이고, 조선 시대에는 인조가 강화로 천도할 시기를 놓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조정과 임금의 거소가 분리되어 결국 태자가 불모로 잡혀가는 치욕을 겪게 되었으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강화는 더할 수 없는 치욕인 불모의 역사적 현장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의 외침을 받던 조정은 강화에 임금이 몽진(蒙塵)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으며, 천도를 한 후로는 최후의 안전을 위하여 강화에 많은 방어 시



광성보의 내부

설이 구축되었다. 강화 전 지역을 5진(鎭:군사 진영)과 7보(保), 53돈대(墩臺)와 9포대(砲臺), 그리고 8개의 봉화대를 구축하여 강화도 전체가 천연의 요새인 동시에 서울을 지키는 수도 방위의 전초기지로서 큰 몫을 하도록 했던 것이다. 보(保)와 돈대란 일정 지역을 맡는 군사 진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대대나 중대 단위의 진영을 말하는 것이다.

### 현대에까지 이어진 강화의 수난

강화의 수난은 현대까지 이어졌다. 고종 3년의 프랑스 함대 사건, 그리고 고종 8년의 미국 군함 제너럴셔먼호 사건, 고종 12년의 일본 군함 운양호(雲揚號) 사건 등 조선 최후의 비극을 연출시킨 도화선이 되었던 곳이 바로 강화이며, 지금은 강화 북쪽의 고려산에 오르면 북녘땅이 지척간에 잡힐 듯 휴전선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강화도와 김포 사이에 있는 강화해협은 폭이 좁고 물살이 무척 빨라 쉽게 드나들기 힘든 곳이다. 이

곳을 이용하여 육지로 접근하려는 외세를 결코 무사히 통과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를 침입하자 돈대와 포대에서는 사력을 다하여 싸웠고, 미국의 제너럴셔먼호에 의한 신미양요 때에도 초지진, 덕진진 등 수비 진영은 외침을 막기 위해 싸웠으나 워낙 무기가 열세한지라 말 그대로 은근과 끈기로 버티어 막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함대와와의 전투 기록에 나와 있듯이 조선의 사상자는 350여 명이고, 미 함대의 사상자는 10여 명으로 당시 무기에 의한 화력의 차이가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대포는 지금처럼 발사 후 날아가서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석기 시대의 돌대포처럼 장약에 의해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충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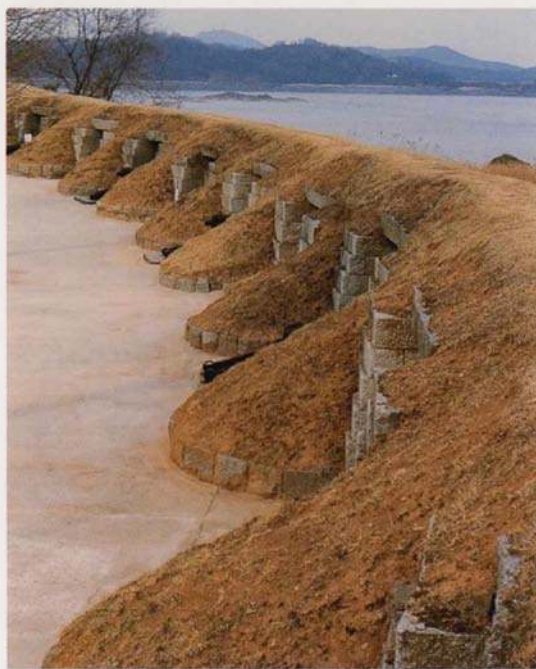
광성보의 조선군 대포

주는 정도였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투포환 선수가 투포환을 적에게 던져 상처를 입히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신미양요 당시에 미국 군함에 맞서 포탄이 떨어지면 창과 칼로, 그리고 돌맹이와 흙으로 미군의 눈을 못 뜨게 싸우다 전원 옥쇄한 조선군을 두고 미군은 조선군의 용맹스러움을 매우 높이 칭찬하였으며, 당시 사령관의 수(帥)자가 쓰여진 황색 깃발은 노획물로서 지금도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남장포대(南障砲臺) 등 조선군이 외세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 자랑삼던 포대들은 그 크기나 규모가 겨우 소총을 막을 수준이었으며 함포 등의 중화기에는 건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특히 일본 군함인 운요양호와 격전을 치루었던 초지진의 규모는 300평 남짓하여 당시 우리의 외침에 대비한 방어 시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으며, 초지진의 성곽벽과 바로 붙어 있는 소나무에는 당시 일본 군함의 포격으로 입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통하여 1977년 진과 돈대, 포대 등 허물어져 그 흔적만 남아 있던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 요새인 남장포대

강화의 전적지를 복원하였고, 강화해협을 중심으로 해안의 격전지인 갑곶돈대,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 택지돈대, 장곶돈대 등을 우선 복원하여 많은 관광객이 현대사의 외침을 막았던 현장의 모습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의 강화의 볼거리로는 매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리는 단군신제이다. 마니산 참성단에서 강화군수가 제주가 되어 단군신제를 지내는데, 이때 7선녀가 낮게 돌로 쌓아올린 참성단 위에서 현란하고 아름다운 신춤을 추며, 매년 전국 체전을 위한 성화가 이곳에서 채화되어 전국 일주 후 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된다.

### 봄에 찾은 강화, 가슴에 남은 역사의 향기

강화에는 많은 구경거리가 있지만, 강화의 서쪽 외포리나 건너편 석모도의 선창에서 매년 봄철이면 먹을 수 있는 밴대이회가 별미일 것이다. 외포리에서 약 5분쯤 배를 타고 가면 석모도에 닿는다. 석모도를 왕복 운항하는 페리호에는 직접 차를 타고 승선할 수 있으며, 사시사철 관광객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 갈매기가 바로 손에 잡힐 듯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맴도는 것도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운치일 것이다.

석모도에는 선덕여왕 때 창건된 보문사가 있고, 우리 나라 최대의 동종이 최근에 만들어져 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섬 둘레를 일주할 수 있도록 도로가 나 있어 한적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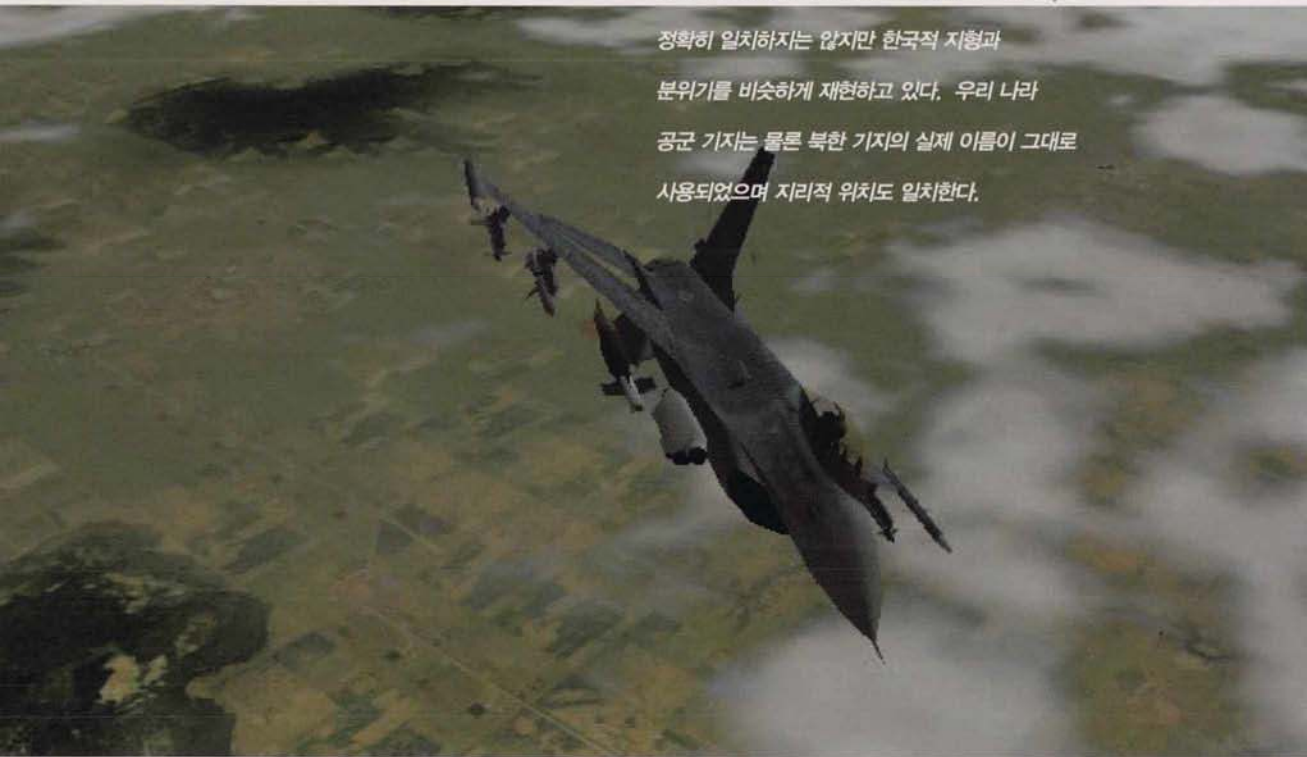
풍광이 서쪽으로 탁 트인 보문사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발길을 돌리는 나그네에게 주는 석모도의 선물인 양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봄에 찾아본 강화는 섬 전체가 아트막한 산과 구릉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었다. 강화는 계절마다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가족 나들이 장소이자 수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선사 시대 이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향기를 머금은 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

글·사진 중령 김 홍 식

# 컴퓨터로 즐기는 전투 비행의 세계

*Falcon4.0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상품화한 탃인지 게임에서의 전장이 한반도이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적 지형과  
분위기를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군 기지는 물론 북한 기지의 실제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지리적 위치도 일치한다.*



최근 미국의 Micro Prose社는 기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개념을 한 차원 뛰어넘는 획기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시장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명 Falcon4.0이라는 F-16(블럭 50)을 모델로 한 전투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 그 주인공!

## 한반도의 지형을 재현한 놀라운 사실성

그러나 말이 게임이고 게임처럼 포장되어 시판되고 있을 뿐이지, 이를 실제로 접해본 사람들은 게임의 사실성이 군사용 시뮬레이터에 가깝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공군의 F-16 조종사 중에는 게임에서 시현되는 지형 형상이 실제 시뮬레이터보다도 실감나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Falcon4.0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상품화한 탃인지 게임에서의 전장이 한반도이며,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국적 지형과 분위기를 비슷하게 재현하고 있다. 우리 나라 공군 기지는 물론 북한 기지의 실제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지리적 위치도 일치한다. 활주로 방향이나 항법 시설도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어, 얼핏 보면 똑같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도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지형은 아니며, 게임에 나오는 군사 시설 또한 정확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게임 중 한강 상공을 비행하면서도 여의도를 찾을 수 없거나 온통 첩첩산중인 한반도와는 달리 넓은 평야가 지속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민감성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사의 능력



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제한은 있다.

Falcon4.0에서 보여주는 그래픽의 사실성은 캐노피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이 표현될 정도이며, 모니터를 바라보면 조종석에 앉아 있다는 느낌이 실감나게 전해져온다. 또한 High G<sup>1)</sup>로 인한 그레이아웃<sup>2)</sup>과 블랙아웃<sup>3)</sup>도 실제와 비슷하게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게 참여하여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게임 메뉴얼 부록 후기에는 실제 조종사와 게임 플레이어의 소감을 비교해놓은 글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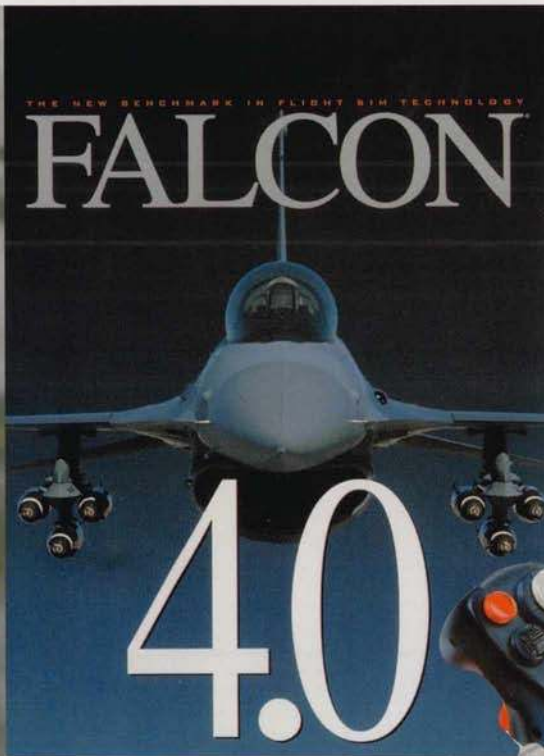
먼저 실제 조종사인 Pete Bonanni의 설명에 따르면, "나는 Falcon4.0 프로그래머인 Gilman과 함께 F-16D에 탑승했다. Gilman은 게임에는 매우 익숙했지만 전투기 조종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조종 솜씨에 매우 놀랐다. 그는 좌석 내에서 각종 기재 취급을 매우 능숙하게 해냈으며, 모든 기본적인 기동을 통해 속도 10kts, 고도 100ft 이상 오차를 내지 않는 정교한 조종을 했다."

한편 게임 프로그래머인 Gilman은 비행을 마친 후 "나는 전투기를 직접 조작하는 데 생각만큼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행중 2대의 다른 F-16과 지나치게 되었는데, 후방석의 Bonanni는 그 비행기들을 나보다 훨씬 먼저 보고 찾아냈다. 나는 노력했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이 점이 바로 실제 조종사와 게임 플레이어의 차이를 극명하게 구분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CD-ROM 600여 메가바이트(MB)에 담긴 프로그램 하나가 오묘한 비행의 전모를 모두 담았을 리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컴퓨터의 도움으로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악기 소리를 넣어 가수들이 음반을 만들어 팔고,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는 출판업계에서 붓과 물감이 사라지

게 한 지 오래다. 조선일보의 연재만화 '광수생각'을 그리면서도 작가는 붓 한 번 들지 않는다고 한다. 음악과 미술의 영

역이 그러했듯이 컴퓨터는 다른 현실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 나가기도 한다.



외부 조망 모드로 바라본 F-16의 비행 모습 (왼쪽)

Falcon4.0 메뉴얼 표지 (위)

전투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필수 장비

Flight Control System(FLCS) (오른쪽)



### 가상과 현실의 벽을 허문 조종사와 게이머의 체험

특이한 것은 Falcon4.0 제작시 게임 전문 프로그래머는 물론 실제 F-16 시뮬레이터 제작자와 미 주방위군 F-16 교관인 Pete Bonanni가 개발에 함

1) 매우 높은 중력 가속도를 말하며, 보통 체중의 6배인 6G 이상의 중력 가속도를 받은 상황을 말한다. F-16을 조종하는 경우 9G는 보통이다.  
2) High G로 인해 머리 쪽 혈액이 하체로 빠져나가 시신경이 마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보통 시야가 어두워지며 시야의 폭도 좁아지게 된다.  
3) 그레이 아웃이 더욱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시신경이 마비되며 의식을 잃게 되는 상황.

## 또 하나의 현실을 창조하는 새로운 가능성

시뮬레이션 게임 분야도 마찬가지다.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표현해내기에 이른 것이다. 더구나 실제 훈련에서는 특정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 공중 전투 기동 계기(ACMI)마저도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일 뿐이다. 이를 통해 게이머는 자신의 비행 궤적을 분석해 볼 수 있으며, 공중전에서의 자신의 약점을 찾아낼 수도 있게 되었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무지막지한 컴퓨터 요구 사양이다. 게임 매뉴얼대로라면 펜티엄® 450, 램은 128을 넘어야 게임에서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최상의 그래픽 상태로 플레이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대로 비행하려면 각종 스위치가 F-16의 HOTAS<sup>4)</sup>와 동일하게 작동 되도록 에디팅<sup>5)</sup>이 되는 50만원대의 조종간과 스로틀, 러더도 갖추어야 한다.

게임의 난이도도 저너 먹고 여가를 즐기 위한 수준은 아니다. 북한 상공을 비행하며 빗발치는 SA-2와 ZSU-57의 화망을 운 좋게 통과했다 해도 접근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한 요격을 즐기는 북괴 MIG-29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보기 일쑤다. 죽지 않고 살아 이기기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T/O와 비슷한 매뉴얼을 오랫동안 연구해야 한다. 상당히 두꺼우며 한 글자 뺄놓지 않고 모두 영문이다. 또한 F-16(블럭50)에 대한 지원 연구는 물론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인(Jane's) 연감>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게임에 익숙해지면 대량 편대군 편성과 임무를 이해하고 각종 적어 전술 기동과 무기 체계, 그리고 전장 상황에 대한 안목이 서면 캠페인 임무를 통해 편대원을 이끌고 적진으로 출격할 수도 있다.

## 값싸고 효과적인 비행 시뮬레이터

최근의 경향을 비춰볼 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컴퓨터 취미라기보다는 항공 취미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스타 크래프트를 비롯한 시중의 게임들이 인간에 의해 설정된 기상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정해놓은 논리대로 게임을 진행하지만,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은 군사용 시뮬레이터처럼



실제와 동일하게 작동되는 스위치와 항법 지도(위)  
HUD(Head Up Display)와 각종 계기판(아래)

럼 오로지 비행이라는 실제 상황을 모델로 하여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고자 접근하고 있다. 유체역학과 항공역학에 대한 이해가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항공 용어도 실제와 다를 바 없고 유도 무기도 제원대로 발사된다. 적 미사일이 다가오면 Beam을 맞추고 최대 G를 걸면서 회피해야만 살아남는다. 실제 공중전에서의 양상과 다를 바 없다.

분명한 것은 실제 비행 상황을 체험하는 데 이처럼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집집마다 한 대씩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사는 세상이 된 셈이다. Ⓡ

글/8전비 PC통신 동호회

4) Hands on Throttle and Stick : 스로틀과 조종간 스위치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든 조종 시스템. 조종사가 스로틀과 조종간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모든 기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5) 게임에서의 동작키를 HOTAS 시스템의 각종 스위치와 연결시키기 위한 키 설정. 예를 들어 키보드의 스페이스바(주로 기총 기능)를 조종간(FLCS)의 Gun 스위치와 연동시키는 작업.

## 청명, 한식, 그리고 곡우...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인가?

이오네스코는 4월을 '죽은 세상이 부활하는 달', 북미 인디언 블랙푸트족은 '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달', 농가월령가에서도 '한갓 미물(微物)도 좋은 때를 만나 즐거워하는 달'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4월은 '활력의 계절' 이 아닐까 싶다.

4월의 절기로는, 5일이 중국 황하의 물이 맑아진다는 청명(淸明)으로, 농가에서는 이날부터 비로소 봄갈이[春耕]를 시작한다. 6일은 한식(寒食)으로 성묘를 하고 무덤에 잔디를 다시 입히거나 나무를 심기도 한다. 20일은 봄비가 내려 백곡이 운택해진다는 곡우(穀雨)로, 이때 서해에서 잡히는 조기는 비록 살은 적지만 연하고 맛이 일품이었기에 예전에는 '곡우살이' 라 불렀다고 한다.

기상 전망대

## 4월은 잔인한 달인가?

### 4월은 기쁨과 활력의 계절

4월은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으며, 기온은 평균 11~14°C, 강수량은 80~120mm 정도를 보인다. 하순으로 가면서 안개와 강수에 의한 비행 불가능일이 증가하고, 전선대 통과 시 강풍이 부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함께 나타나는 황사 현상은 항공 작전에 많은 지장을 주기도 한다. 지면 상태의 불량과 기온 상승으로 인한 교통 사고의 급격한 증가, 건조로 인한 산불 가능성의

증대, 심한 기온 일교차로 인한 개인 건강 문제 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엘리엇의 '잔인한 달' 은 봄이 왔는데도 새로운 생명체를 피워내지 못하는 유럽 문명에 대한 시인의 슬픈 절규였다. 재 우리는 4월을 죽어버린 달이 아닌 생(生)이 꿈틀대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달로 만들어 보자. 4월은 우리에게 '활력의 달' 이다! ⚡

73기상전대 중령 반기성



# 바로 지금 당신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 영화 <쉬리>를 보고

16진비 대위 전 성 대

모처럼 꼭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본 영화가 있다. <쉬리>였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내 직업이 직업인지라 군인과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요즘 의도적으로 자주 보게 된다. 지금 한창 개봉중인 <씬 레드 라인>도 상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곳 지리도 잘 모르고 어쨌든 발길이 닿은 곳은 <쉬리>를 마지막회 상영하고 있는 의정부의 모 극장이었다. 그래도 우리 영화를 봐야 한다는 의무감(?)에...

### 철저한 고증으로 이뤄낸 사실성

예고편이 지나고 타이틀이 뜨기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그런 대로 매끈하게 뽑아낸 우리식 액션 영화' 짬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첫 장면 5분간. 영화는 북한 특수 8군단 요원들의 훈련 장면을 아주 생생하고 빠르게 보여준다.

각본까지 쓴 강제규 감독이 3년 동안 각종 문헌과 참고 자료를 통해 표현해낸 실제와 흡사한 장면들이다. 시종 무표정한 얼굴로 (실제로 사람을) 찌르고, 쏘고, 달리고..., 어두운 화면에는 살기만이 흐르고 어스레 선혈이 낭자하게 튀고 있다. 단순한 액션 영화를 예상한 대다수의 관객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제규 감독이 얼마 전 TV에 출연하여 영화 제작 취지를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남·북한이 무력으로

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작 초기부터 헐리우드나 홍콩판 액션 영화와는 다른 한국적인 내러티브를 강조하기 위해 강감독이 선택한 것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인 것이다.

###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영화의 기동 줄거리는 국방 과학 기술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액체 폭탄을 둘러싸고 우리의 정보 기관 요원들과 북한 특수 8군단 요원들이 대립하며 결말에 이르러서는 모든 음모가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참관한 축구 경기장에서의 테러 도발 행위임이 밝혀진다.



흥행을 질주하고 있는 이 영화를 전국에서 이미 100만 명이 보았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보고 느낀 점은 다 다를 것이다.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에 감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실제와 같은 충격 신과 폭파 장면애 매료된 사람들, 또는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에 후한 점수를 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극장 문을 나서며 같이 계단을 내려오는 시민들이 그러한 도발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지도 모를 사실임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기를 기대하고 싶었다.

비록 적이지만 8군단 대대장 역을 훌륭히 연기한 최민식의 대사가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 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화해 무드? 그런 것이 도대체 조국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 분단의 현실, 영화 속의 현실

영화에서는 축구 친선 경기로 상징되는 남·북한 지도자들의 화해 분위기 조성이란 정치적 논리에 근거할 뿐, 남한을 무력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만 교육받은 특수 요원들의 논리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북한 수뇌부의 의도되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표현하여 실제 북한 현실로 받아들여 지기는 힘들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결코 비현실적인 내용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나는 극장 문을 나서며  
같이 계단을 내려오는  
시민들이 그러한 도발  
행위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언제든지  
발생할지도 모를  
사실임을 조금이라도  
이해했기를 기대하고  
싶었다.

얼마 전까지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던 2002년 월드컵 남·북한 공동 개최 등 궁극적으로 필요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우리 모두의 바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적에게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조국 통일 만세”를 되뇌며 자폭하고 마는 영화 속의 북한 특수 요원 처럼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상대는 바로 맹목적인 통일관으로 무장한 그런 무력 집단인 것이다. 항상 이중성이 존재하는 것이 분단의 현주소인 만큼 영화 속의 현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❶





공군을 본다

**‘사이버 공군대학’ 으로  
오세요**

# CYBER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훈련 체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일부 정규 과정  
입과 장교 외에는 공군대학에서 수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원격 교육을 통하  
여 고급 지휘관 참모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부대별 업무에도 지장  
을 주지 않는 등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어느 공군 조종사의 '사이버 공군대학' 수강 일지

아침 햇살이 창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어느 일요일 아침. 작전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소령**은 공군대학 사이버 CSC(Command And Staff Officers Course : 고급 지휘관 참모) 과정(E-mail 주소 : <http://www.afc.ac.kr>)의 원격 강의에 출석하기 위해 자신의 컴퓨터를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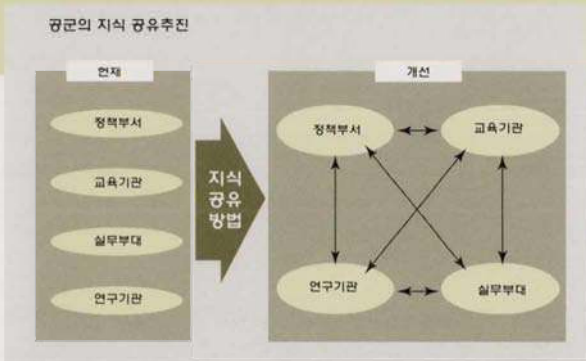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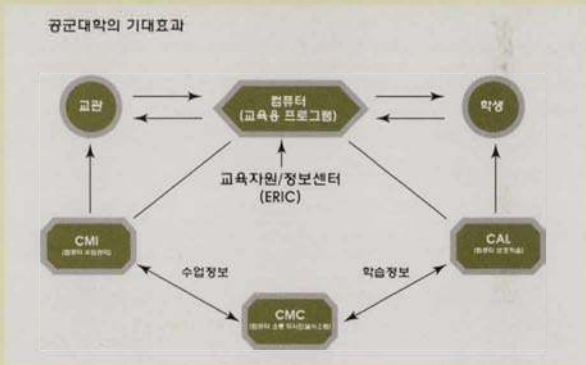
지난 일주일간 출장을 다니느라 오랜만에 접속한 원격 강의 내용은 **鄭**교수의 '항공전사' 과목이다. 실제 강의와 교재 중 **鄭**교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실제 강의를 선택하자 강의 내용은 주요 전쟁 상황이 비디오와 함께 설명이 곁들여져 있으며, 항공전 사례가 유형별로 그래픽 도표와 함께 제시된다. 오늘따라 **鄭**교수의 음성이 더 힘차게 들린다. 수업이 끝날 무렵 **鄭**교수는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며 사이버(Cyber) 분임반별로 진행할 분임 토의 주제와 토론을 위한 참고서적과 문헌을 안내한다.

강의 내용을 저장한 다음, **김소령**은 공군대학 전자도서관에 들어가 **鄭**교수가 소개한 <공군평론> 제○○○호에 게재된 '전략적 공습'을 읽는다. 논문 내용을 원격 강의 수업에서 배운 원칙들과 비교하여 사이버 분임반에 들어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

이렇게 오전 내내 사이버 공군대학에서 공부를 한 **김소령**은 가족들과 함께 외출, 저녁 식사 후 귀가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군대학 사이버 분임반에 들어가 보니 전투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동기생 **朴**소령이 자기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글을 본다. **朴**소령이 제기한 반론에 대응하기 위해 공대 전자도서관에서 관련 참고서적 목록을 확인한 다음, 자신의 주장을 보강할 준비를 하며 잠자리에 든다. 머리 속에는 한달 동안에 작성해야 할 제2분야 레포트에 대한 구상과 함께 **朴**소령의 반론에 대한 대

응 논리 개발이 마음에 걸린다.

한편 **鄭**교수는 사이버 분임반별로 들어온 학생들의 토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학생의 의견에 대한 강평을 사이버 분임반에서 발표한다. **鄭**교수는 사이버 CSC 과정의 평가를 위해 학생들이 원격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개인별 레포트와 분임 토의 내용을 채점한다. 성적 30%를 차지하는 학생별 원격 강의 출석률과 분임 토의 참여율은 자동으로 기록 관리된다. 학생 평가 중 필기 시험은 수료 전 소집 교육 기간에 실시하는 졸업 시험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사이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레포트 제출, 분임 토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 중견간부 교육과정에 원격 교육 체제 구축

위의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군 최초로 입학에서 졸업



까지 전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택, 재근무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Cyber) 대학이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군은 오는 5월 15일부터 공군대학의 지휘관 참모 특별 과정(CSC/ECI)을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교육 체제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3월 9일 밝혔다.

그동안 공군대학에서는 공군의 중견간부가 되기 위한 소령급 이상 장교를 매년 소집하여 1년간 정규 과정에 입교시키거나, 각 부대에서 근무하며 교육받는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각 부대별 사정에 따라서는 공군의 중견 간부가 근무지를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관련 업무의 공백으로 담당자의 재조정이 필요했으며, 교육 병력에 대한 공군대학의 시설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번에 새로이 실시하게 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훈련(CBT : Computer Based Training) 체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일부 정규 과정 입과 장교 외에는 공군대학에서 수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원격 교육을 통하여 고급 지휘관 참모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부대별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등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근무지와 집에서 강의, 세미나 등 참여 가능

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아리조나주의 피닉스대학 주관으로 서부의 13개 주가 공동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대학을 운영함으로써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헬싱키대학에서 사이버 대학(가상 대학)을 개설하여, 원거리 거주자들의 향학열을 만족시키고 학업 성취도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공군대학 개설을 위해 CBT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강병희 중령(공사 30기, 41세, 영국 랭카스터 대학 교육공학 박사)은 “우리 나라 일부 교육기관에서도 97년에 1~2개 특정 과목을 대상으로 사이버 대학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으나 이번의 공군대학처럼 입학에서 졸업까지를 원격 교육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사이버 공군대학 입과 장교들은 입학 후에는 교관진으로부터 컴퓨터를 통한 원격 강의를 받게 되며,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세미나 및 분임 토의 참여, 리포트 제출, 수시 시험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전자 도서관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공군의 전부대에서는 부서간 업무 지식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어 상호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18일 국방부, 합참, 연구기관 및 각군 관계관이 모인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했던 공군은 참가자들로부터 “군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각 부서의 CBT 체제 구축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중위 **용홍근**



# 플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우리 가족처럼

농경시대 이전에는 세계의 땅 중에서 6천70만 평방 킬로미터가 산림으로 덮여 있었는데 농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2/3로 크게 줄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택지 건설, 도로 건설, 골프·스키장·콘도 건설 등으로 숲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한편 세계 산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열대우림은 가장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현재 80%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숲이 계속 파괴된다면 인류의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숲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숲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숲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해 주며 대기중으로부터 다량의 탄산가스를 제거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감소시킨다. 둘째, 숲은 대기 오염 물질을 어느 정도까지 흡수하고 걸러줌으로써 공기를 맑게 해준다. 셋째, 숲은 자원의 보고이며 여러 가지 동식물 자원의 공급원이 된다. 넷째, 홍수시 강우를 흡수하는 완충 작용을 함으로써 토양 수분을 오래 보존해주며 침식을 감소시켜 토양을 보존해준다.

다. 다섯째, 숲은 증산 작용, 방풍·방설 등의 작용을 통하여 기후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혹심한 기후 조건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여섯째, 숲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증산 작용에 의해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여름철에 우리에게 상쾌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 우리가 숲을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이렇듯 숲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



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산림의 보호에 협력해야 한다. 우

선 산이나 들로 나들이를 할 때 함부로 가지를 꺾지 말고, 담배를 피운다거나 버너를 사용하여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이를 아껴쓰고 폐지 수집에 적극 협조하며, 재생지로 만든 상품을 우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 등도 숲을 지키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

공군본부 환경과

# 경제난 극복 우수 부대 '공군 5672부대'

지난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구제 금융은 국민들 경제 생활과 정서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친 경제 운영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이에 군부대도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캠페인을 벌여 경제난 극복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 특히 공군 5672부대는 '98 경제난 극복 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으며, '99년에도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실천함으로써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 자가용 대신 자전거 타기 운동 '봄'

'98년초부터 자가용 대체 교통



수단으로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장병들의 구매 요청이 늘어남에 따라 시중가의 60% 가격으로 자전거 120대를 일괄 구입 신청하여 장병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전거 타기 붐을 조성하였다. '98년 자전거 전용 도로를 신설하여 차량 통행 및 주·정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결과, 식당 주변 주차장에 들어섰던 각종 차량은 자취를 감추고 자전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올해에는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정착화되어 일과 시간과 퇴근 시간 때 도로에는 작전용과 작업용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 승용차를 찾아볼 수 없어 에너지 절약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 캔 압축기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



'98년초 재활용 판매 대금으로 캔 압축기를 부대 내 아전정비대에서 직접 제작하여 약 9백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다. 이때 제작된 27대의 캔 압축기는 부대뿐만 아니라 타 부대에도 지원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외화 절약에 기여하였다.

자체 제작된 캔 압축기는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용이하고 간단한 구조로 작동이 쉬워 부대 내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대는 올해에도 캔 압축기를 추가 제작하여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계획이다.

## 일회용 건전지 충전기로 자원 절약

'98년 4월중 폐자원 매각 대금으로 일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구입하여 부대 내 대병회관 2층 피복 수리

부대는 '99년을 맞아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서부터 습관화된 절약 정신을 기르고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높은 지휘 관심과 강력한 실천 의지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소에 설치하였다. 충전기 1대당 24개의 일회용 건전지(AAA, AA크기 1.5V) 충전이 가능하며 1회 사용 후 버려지던 건전지를 2~20회 반복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 후 평균 작동 시간이 6~18시간에 이르러 높은 자원 절약을 기대할 수 있다.

부대는 올해 5월에도 일회용 건전지 충전기를 추가 구입하여 비치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및 외화 절약, 환경 보존에 기여하여 나갈 것이다.



일회용 건전지 충전기

### 그밖의 모범 사례 몇 가지

부대는 차량 5부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8년 부산시로부터 무지개 운동 적극 추진에 따른 유공 표창을 받았다. 현재에도 월 1회 무차일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퇴근 카풀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98년 5월에는 실직자 돕기 바자회(일일찻집, 주먹밥 먹기, 알뜰 바자회)를 통해 3백9만 7천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IMF 실직 가정 병사 12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역 구청의 협조 아래, 지역 특산물 교환 판매와 장병들의 성의를 모아 알뜰 시장을 운영하고 사랑의 주먹밥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직 부모 장병들

을 위한 결연·후원 제도를 정착화하고 6·9·12월에 모금 운동을 통한 성금 전달로 실직 가정 병사들을 격려하여 나갈 것이다.

한편 부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잔반통이 없는 식사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낭비되는 음식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작은 노력들

부대는 '99년을 맞아 가장 기본이 되는 곳에서부터 습관화된 절약 정신을 기르고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높은 지휘 관심과 강력한 실천 의지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절전, 절수,

절유 등 시설 유지와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형 기자재를 반영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성실히 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전기 시설은 조속히 교체함으로써 낭비되는 전력 요인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병들은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등을 습관화하고 있다.

기본이 되는 곳에서부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있는 장병들은 올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5672부대 대위 노 채 정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7) 존 보이드의 '전략적 마비' 이론

## 항공 전략 사상과 항공력의 교훈

보이드의 분쟁 이론은 물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이고 시간적인 차원의 방법을 중요시한다.

그가 말하는 군사적 목적은 '기습적이며 위협을 줄 수 있는 작전적·전략적 차원의 상황을 선도하여

적 지휘부의 정신과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다.

초기 항공 전략 사상가들은 적의 산업 시설에 바탕을 둔 전쟁 수행 능력의 마비를 통한 승리를 주장하였다. 이것을 발전시켜 전쟁의 통제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지휘·통제 체제의 전략적 마비를 강조한 현대 항공 전략 사상가들이 있으니 바로 존 보이드(John Boyd)와 존 와든(John Warden)이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존 보이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 미공군의 바이블, 보이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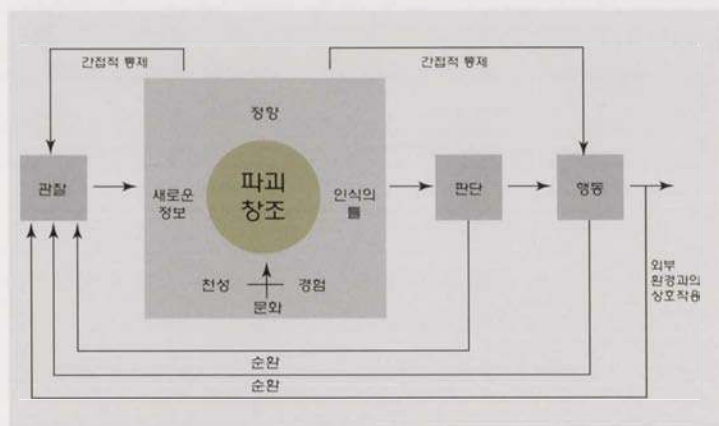
보이드 이론의 기틀은 30여 년간의 공군 경력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한국 전쟁 기간에 그는 F-86을 조종하였으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동 능력'으로 표현되는 효율성에 대한 직관적 통찰력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공중전에서의 기동과 대응 기동에 대한 이론

을 체계화한 <공중 공격 연구(Aerial Attack Study)>를 집필하였으며, 그의 동력 기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 아이디어의 기본적 개념들은 현재까지도 미국 조종사들의 바늘로 남아 있다. 또한 그는 국방부의 FX 계획에도 참여하여 F-15와 F-16을 결정하는데 기여하였다.

보이드의 분쟁 이론은 물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이고 시간적인 차원의 방법을 중요시한다. 그가 말하는 군사적 목적은 '기습적이며 위협을 줄 수 있는 작전적·전략적 차원의 상황을 선도하여 적 지휘부의 정신과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신속한 작전의 구사가 요구된다. 달리 말하면 보이드에게 있어 전시 행동의 목적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 대해 적이 정신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적을 무기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들을 종합하여 보이드는 개인이나 조직의 모든 합리적 행동은 '관찰(observation), 정향(orientation), 판단(decision), 행동(action)'의 네 가지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였다. 보이드는 이같은 의사 결정 과정을 'OODA Loop 모델'로 설명하였다. OODA 과정은 외부환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천성·문화·경험,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인식의 틀을 바탕으로 파괴 또는 창조의 '정향' 과정을 거치며, 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네 가지 의사 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보이드의 OODA LOOP 모델

### 승전의 비결, 전략적 마비 이론

군 지휘부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자발성과 조화를 통한 아측의 분열 최소화이다. 이를 위해 의사 결정 시간을 줄이는 등의 아측 OODA 과정을 집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다양성과 신속성을 통한 적 분열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 적의 의사 결정 시간을 늦추는 등의 적 OODA 과정을 와해시켜야 한다. 이러한 '분열의 조성'으로 아군은 적의 OODA 과정에 지

속적으로 관여하고, 이를 통해 적을 혼란과 무질서에 빠뜨려 대처 능력과 저항 의지를 동시에 마비시켜야 한다. 즉, 적보다 OODA 과정을 신속·정확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보이드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정신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 널

리 회자되고 있는 전략적 마비 이론은 사실 최근의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의 역사적 기원은 손자(孫子)의 저서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인명을 중시한 비살상적인 성격이나 군사력 사용의 경제적 측면의 강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략적 마비'는 전통적인 의미의 완전 섬멸이나 소모전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전쟁을 지속시켜 주는 중심점은 과거에는 산업 기반, 현재에는 지휘 체계, 그리고 미래에는 정보로 변화될 것이다. 보이드는 이러한 혁명적 과정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으며, 기존의 항공력 사상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정당화시켜 주었고 우리 공군인들에게 항공력에 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주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기계도 영토도 아니다. 인간이 전쟁을 수행하며,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여야 한다. 전쟁의 승리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 존 보이드

(다음 호에 계속)

전투발전단 전쟁연구실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만큼이나  
어머니 영정 사진 하나  
찍어드리지 못한 불효  
때문에 그 남자는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 공원의 사진사

그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으시고 그 남자를 기다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을 내고 사진관에 갈 형편이 못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모여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남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진관에

때를 기다리면서 물 길고 불 때는 동지승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진과 상관없는 주변의 일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필름을 현상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마침내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봐도 좋다고 허락을 받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던가는 그 남자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천직이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지요.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세상은 그저 바라보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고, 그 남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세상이었지요. 카메라를 메고 나가서 신혼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앞세운 사진관을 가질 수 있었지요.

그의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은 때로 한 사람의 장래를 결정지를 수험생 원서에 붙여지기도 하고, 입사원서에 붙여지기도 하고, 물래 선을 보는 일에 동원이 되기도 했지요.

한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진이기도 해서 그 남자는 최대한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드러나는 좋은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그 남자가 일에 정신을 쏟는 사이에 시골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날, 명색이 사진관을 하는 아들의 어머니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확대한 영정으로 모셔져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가신 것만큼이나  
 어머니 영정 사진 하나  
 찍어드리지 못한 불효  
 때문에 그 남자는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공원에 가서 매주  
 화요일이면 영정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리곤  
 하지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  
 남자의 카메라 앞에  
 앉지 않으시던 분들이  
 그 남자의 사연을  
 듣고는 눈물을  
 지으시면서, 또 눈물  
 닦은 자리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다음 주에 가보면 이미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 남자가 찍어드린  
 사진을 너무 빠르게  
 액자에 넣어서 영정  
 사진으로 써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겨우 주머니에 동전  
 몇 개 달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공원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어머니께  
 못다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그 남자는  
 늘 감사를 드리지요.  
 한평생의 수심이 더  
 많은 주름진 얼굴. 애써

한평생의 즐거운  
 순간들을 다 모아보려고  
 애쓰시는 카메라 앞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을 보면서 때론  
 사진을 찍다가 그  
 남자가 울기도 합니다.

그 남자는 오늘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원 벤치에 앉으시게  
 하고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소녀처럼  
 소년처럼 수줍게 카메라  
 앞에 앉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어머니가  
 되셔서 카메라 앞에서  
 웃고 계십니다. ♣

방송작가 김 미 라



# 일생에서 가장 정열적이었던 시간들

16전비 원사 최 충 규

졸업이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으니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여 졸업을 하게 되니 지난 2년간의 세월은 내게 있어서

가장 정열적인 시간들로 기억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 욕망과 정서적 욕망, 그리고 의지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군(軍)이라는 울타리 속에 안주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온 20여년... 나에게 때늦은 지적 욕망이 찾아온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 마흔이 넘어 찾아온 배움의 기회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어깨너머로 신세대 사병들의 키보드 두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나도...”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하며 아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볍게 여

기곤 했다. 대학을 못 나왔다는 자괴감에 늦게나마 영외로 야간대학 과정을 다니는 주위의 동료와 후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간접적이거나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던 '96년말의 어느 날, 부대에서는 새로운 병영 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외로 나가지 않고도 영내에서 학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나의 때늦은 지적 욕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시작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기회는 세 번 온다고 했던가. 영내에서 학사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게 된 혜택이 몇 번째 기회인

지는 몰라도 마흔을 넘은 내게 결코 놓칠 수 없는 행운이었다.

## 병영대학 생활 동안 달라지는 내 모습

실례임으로 맞이한 입학식. 나보다 나이 어린 영외장병 학생들과 나란히 서서 똑같은 97학번 새내기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으니 부끄러움과 가슴 뿌듯함이 동시에 교차했다. 이후 병영대학 생활은 비록 캠퍼스의 멋을 다양하게 즐기기에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진 않았다. 하지만, 본교인 경북전문대 학생들과의 단체 M.T와 야유회를 통해 자연스러운 교감과 또 다른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가끔 대학 본교에서 수업을 마칠 때마다 학교 근처 먹자골목에서 여럿이 모여 걸쭉한 막걸리를 마실 때 나의 가치관은 더욱 젊고 새롭게 변해갔다.

2년 동안의 병영대학 생활에서 얻을 수 있었던 또 다른 보람은 타부서의 요원들과 계급, 신분을 초월한 유대감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의실에서는 저마다의 계급과 신분을 초월하여 공부도 서로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은 97학번'이라는 끈끈한 정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 나의 발전은 곧 공군의 발전

삭막한 남정네들 속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화사함을 더해줬던 여군무원 학생들, 해경이, 현희... 패기와 정열로 굶은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과대표 김원사와 후배 하사관들... 그 모두가 소중한 벗들이었다. 그리고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했던 강성화 조교님, 학교 관계자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 부대 관계자 분들에게도 정말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때로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 가정 생활과 병행하는 어려움, 바쁜 직장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이 많은 장애 요소이긴 했지만, 졸업이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었으니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의지가 생겼다. 그러한 도전을 극복하여 졸업을 하게 되니 지난 2년간의 세월은 내게 있어서 가장 정열적인 시간들로 기억될 것이다.

이제는 그 동안 병영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의지를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나의 발전은 곧 부대의 발전, 나아가서는 공군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

## 하사관 후보생,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공군 현역 상병입니다. 하사관 후보생 모집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지원 자격과 선발 기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현역병으로서 하사관 후보생 지원 자격 및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18세~27세까지의 연령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공군 현역병에서 하사관 후보생 지원 자격은 일병 이상이며,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선발 기준은 당해년도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 계열별로 소요 인원을 선발하되 전형 종목별 기준에 도달한 자 중에서 학과 성적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 인력 운영상 필요시 우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우대 선발 대상은 특수 기술(자격, 면허, 경력 등)을 소지한 응시자, 연장 복무 지원자, 공군 현역병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가점 부여 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격증 소지자	장기	연장(2년)	현역병 지원	명예 가족
가점	10점	10점	5점	10점	10점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문의 : 호-1152, 02-506-1152)  
(하이텔 go airforce, 인터넷 www.airforce.go.kr)

## 입대 전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지원대대에서 근무하는 사병입니다. 군 입대 전에 교통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또한 예외 조항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저의 중대장께서 그 후 이를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징계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다 끝난 것인데 또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형벌은 국가 또는 사회 질서 유지 및 개인의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처벌임에 반하여, 징계는 특수한 사회 내부의 규율을 확립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처벌로서 한 가지 잘못에 대하여 양자를 동시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입대 전에 교통 사고를 낸 것과 군대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지므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군본부 법무감실(문의 : 호-6404, 02-506-6404)

## 노란 견장에게

시설대대 병장 장 호 식

기지를 건다 보면 어깨에 노란 견장을 차고 군기든 모습으로 힘차게 팔을 흔들고 다니는 전입신병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 전입신병들을 보면 어느덧 군 생활이 찬 내 모습이 약간은 대견(?)스러울 때도 있고 예전 내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가 떠오를 때도 있다. 누구나 군 생활을 했으면 그런 노란 딱지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1997년 6월 7일 토요일에 이곳 제1전투비행단에 배속을 받아왔다(자대 배치 받은 그날을 나는 날짜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그 전날이 바로 내 생일이었으므로). 처음 더블백을 메고 광주 터미널에 내렸을 때 태어나서 생전 처음 와보는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 고향이 대구인 나는 어쩌면 지역의 낯설음보다는 그 동안 들어왔던 지역 감정이란 선입견들 때문에 더 두려웠는지 모른다. 물론 지금은 그런 선입견들은 씻어버린지 오래지

만... 그렇게 터미널에서 부대 버스를 타고 부대에 도착해 정문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같이 버스를 타고 온 동기들의 굳어지는 표정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다. '이곳이 자대구나...' 순간 느껴지는 막막함, 그리고 웬지 모르게 온몸을 둘러싸고 파고드는 불안함들..., 전입신병만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긴장감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장병들이라면 누구든 한 번은 느껴봤으리라 믿는다. 그렇게 시작된 자대생활, 신병생활, 새롭게 시작된 군 생활에서 어깨에 노란 딱지를 달고 생활하던 그때의 모든 행동들은 새로움 그 자체였다.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처음 첫발을 내딛는 때인 전입신병시절, 군 생활에 대한 각오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과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때가 아닌가 한다. 누구든 신병생활은 힘들고 고달프다. 신병시절은 신병이란 이름 그 자체로 힘든 것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

이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 자체가 힘이 든다. 하지만 이런 신병생활 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견뎌 나가고 여기서 한층더 성숙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 비단 군 생활뿐 아니라 나중에 세상에 발을 들여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역경을 헤쳐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이제 갓 이곳으로 온 신병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신병생활은 마냥 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그 때가 바로 여러분의 군 생활에 있어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라고. 힘들 땐 시간이 지나 더 큰 사람으로 우뚝 커버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 다시금 진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건투를 빌어드린다.

노란 딱지 파이팅!!

월간선봉 중에서

## 4월의 공군 약사

- 4. 1. 공군창설 7인 간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 입교('48)
- 4. 1. 정훈공보실 창설('50)
- 4. 3. 최초 국산 항공기 「부활호(復活號)」 제작('54)
- 4. 10. 공군교육사령부 창설('73)
- 4. 10. 걸프전 참전 한국공군수송단(비마부대) 개선('91)
- 4. 12. F-16D 전투기 도입('86)
- 4. 15. 제1항공교육대 창설('51)
- 4. 25. T-28 훈련기 퇴역('89)
- 4. 28. 북한 공군 이건순 중위 귀순('50)
- 4. 29. C-46 수송기 인수('55)
- 4. 30. F-5A 전투기 도입('65)

## 4. 3. 국산 항공기 「부활호(復活號)」 제작('54)

공군은 6·25 한국전쟁 이후 부족한 항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폐기된 항공기 부품을 회수하여 공군기술학교 정비교육대에서 한국 최초로 경항공기, 「부활호」를 제작하였다. 「부활호」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戰後 폐허화된 조국을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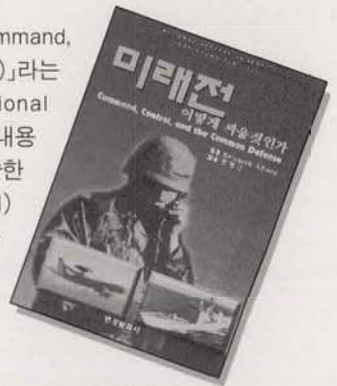
## 4. 30. F-5A 전투기 도입('65)

1955년 최초로 F-86F 전투기를 도입하여 제트화를 이룩한 공군은 '60년대 북괴 공군이 MiG-17/21 전투기를 보유하자 전력의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1965년 4월 30일 F-5A 전투기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한국공군은 亞音速에서 超音速 공군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미래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책은 「지휘, 통제, 합동방위(Command, Control and The Common Defense)」라는 제목으로 1996년 8월 미 National Defense University에서 출간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책을 저술한 케네스 알라드(Kenneth Allard)는 군사이론 분야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석학 중의 한 사람으로서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책에서는 땅·바다·하늘이라는 이질적인 작전환경

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육·해·공군을 결합하여 어떻게 통합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군의 관심사항인 군구조, 군통합 문제, 각 군, 합참, 국방부간의 관계, 공지전투, 육·해·공군의 전략을 총망라하는 이론인 합동전략과 합동작전을 위한 지휘통제 체계 건설방법 그리고 정보전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Kenneth Allard 원저/권영근 번역/521면/연경문화사/18,000원

## BOOK

## 국내 실무 연수

공군에서는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실무 연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민간 연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군 장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기관 및 민간산업체, 방산업체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총망라한 '국내 실무 연수'는 정보기술교육원, 한국표준협회 등 34개 기관에 개설된 964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간, 교육내용, 과정비, 교육장소, 합숙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여 군 장병들이 전역 후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한 의문사항을 완전히 해결해 주고 있다.

공군 특기분야 실무 연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책자의 발간은 일선 부대의 업무 교육계획수립 및 운영에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군에서 최초로 발행되어 민간 연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공군 장병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군본부 교육훈련감실 발행/306면

### 1. 공군 창군 50주년 기념 포스터 공모

공군 창군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 이를 기념하고 신뢰받는 21세기형 강한 공군 홍보를 위하여 전장병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에서 포스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기간 '99. 4. 26.까지). 최우수 및 우수 입상자에게는 참모총장상과 상금(각 150, 100만원) 및 영내 사병에 한하여 별도 특전이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각 부대 정훈참모, 02-506-6232, 042-552-6232)

### 2. '군사교리연구' 원고 모집

공군 전투발전단에서는 "군사교리연구" 원고를 연중 모집합니다. 모집원고는 다른 간행물에 기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비밀내용이 아닌 창작논문 또는 번역문으로서 군사개념, 교리, 전략·작전, 무기체계분야 및 군사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작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이며, 번역문의 경우 필히 외국어 원문을 명기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이 공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효-5750~6, 042-552-5750~6)

### 3. '99년도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공군에서는 미래의 조국영공을 수호할 조종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2학년 재학생으로 타군 장학생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선발절차는 1차로 대입 수능성적 순으로 선발하며, 2차로 정밀신검, 체력검정 및 면접을 보게 됩니다. 지원서 교부 및 접수처는 각 지방병무청(교부 및 접수기간 : '99. 4. 12.~4. 24.)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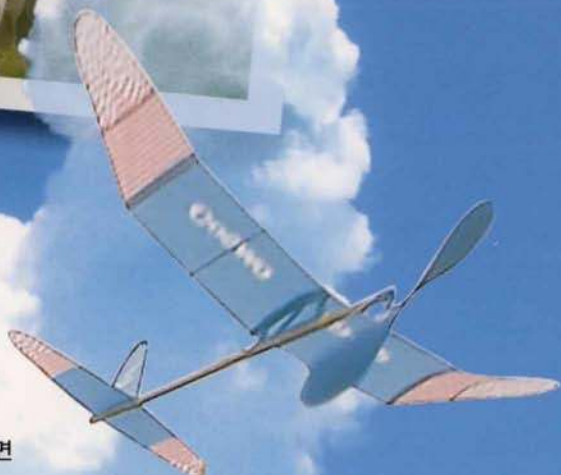
(문의 : 042-552-1151~3, 각 지방병무청)

### 4. '정신전력의 횃불' 원고 모집

'정신전력의 횃불' 지는 공군 정신전력의 산실인 공군 보라매 수련원에서 연 2회 발행하는 정신전력 연구지로서 정신전력 고양에 관한 내용, 안보·통일분야, 북한문제 및 군사분야, 공군발전에 관한 미래 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제언 및 정신전력/안보 관련 체험수기 등을 모집합니다. 연중 수시 접수되며 분량은 A4지 5매~20매 내외이며 타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번역물은 제외됩니다.

(문의 : 성무대-5525, 0431-229-5525)

\* 성실한 의견을 주셨던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2월호 당첨자는 17전비 헌병대대 김인종 하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만약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저기 저 하얀 구름 너머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가볼 테야.  
구름은 이불처럼 따뜻하게 펼쳐지고,  
나는 그 위를 쿵쿵 뛰며  
신나게 놀 수 있겠지?  
해님은 달님을 만나 쓱쓱쓱 이야기를 나누겠지  
오래 전 잃었던 빨간 풍선이 그곳에 있고,  
쫄로롱 짹짹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을 거야

아 얼마나 좋을까, 조종사 아저씨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늘을 날며  
맘껏 꿈을 꿀 수 있을 테니까..

## 4월

어린 싹과 어린 순,  
어린 잎과 어린 꽃들이  
산과 들, 트랙과 행길에서  
일제히 푸른 불길을 뿜고 있다

온 천지가 눈부시게 환하다  
따스하고 훈훈하다

누가 이 달을 잔인하다고 탓하지?  
너의 마음의 황폐를 계절에다 돌리지 말라!  
눈 감고 어둡다고 하지들 말라

4월은 자혜의 어머니  
풋것과 어린 것들의 세상

구상







대한민국공군 50주년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49-1999

월간 공군은 공군인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군誌를 통해 전하고  
싶은 소식이나 내용을  
보내주시면 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독자엽서

공군내  
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보내는 사람

이름

소속(주소)

전화번호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 일간 공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T호 6231-7, (02)506-6231-7

성실한 의견을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